

## 주요 노동동향

###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17년 7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2.2% 증가(전월대비 1.2%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제조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건설업의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2% 증가함(전월대비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증가해 1.2% 증가).
-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17.6%), 전자부품(10.7%), 석유정제(8.0%)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13.0%), 기타운송장비(-17.9%), 금속가공(-8.2%)에서는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함(전월대비 1.9%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4.3%), 전문·과학·기술(-3.7%)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4.9%), 보건·사회복지(6.74%) 등에서는 늘어 2.2% 증가함(전월대비 0.6% 증가).

#### ◆ 2017년 7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25.0%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4%) 판매는 줄었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11.5%), 화장품 등 비내구재(1.0%)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함(전월대비 0.2% 증가).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2.4%)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7.7%)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25.0% 증가함(전월대비 5.1%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동월대비 14.1%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철도·궤도, 기계설치 등 토목(-37.0%)과 주택, 사무실 점포 등 건축(-29.3%)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30.8% 감소함.

◆ 2017년 7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세임.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함.

◆ 2017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6%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2017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3.48(2015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함(전월대비 0.6%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7.4%), 주택·수도·전기·연료(3.9%), 음식·숙박(2.5%), 교통(1.6%) 등에서 상승함.
  - 2017년 8월 생활물가지수는 103.77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함(전월대비 0.8% 상승).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안은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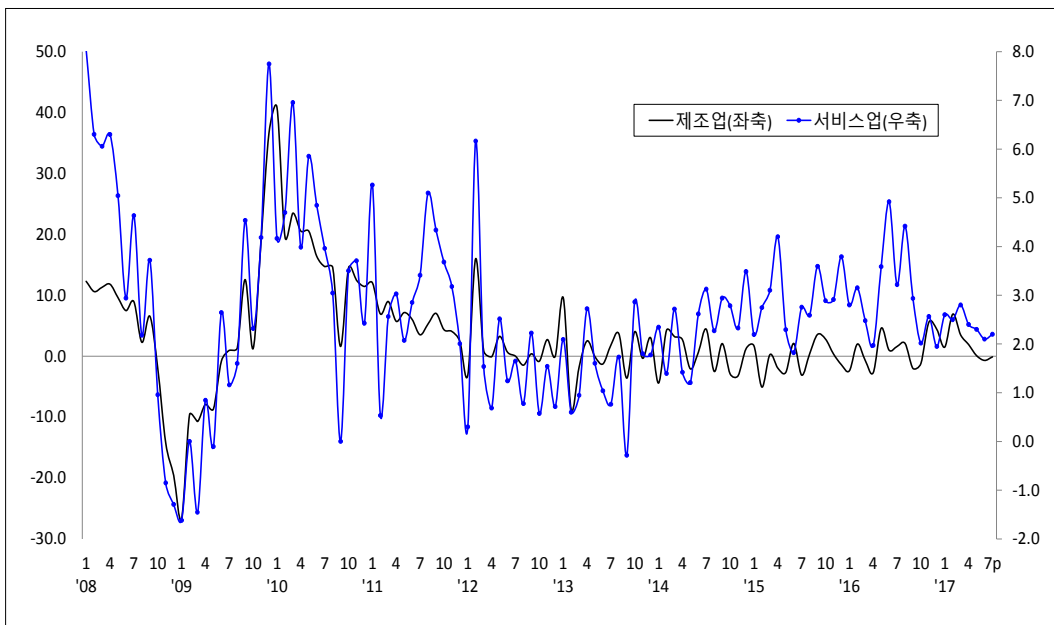
		연간			분기								월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2016 7월	2017	
					3/4	4/4	1/4	2/4	3/4	4/4	1/4	2/4p		6월p	7월p
생산	전산업	1.4	1.9	3.0	2.5	2.7	2.1	3.2	3.0	3.5	3.9	2.7	3.2	1.7( 0.0)	2.2( 1.2)
	광공업	0.2	-0.3	1.0	0.4	0.4	-0.3	0.7	0.5	2.8	3.7	0.5	1.5	-0.5(-0.5)	0.1( 1.9)
	제조업	0.3	-0.3	1.0	0.2	0.6	-0.5	0.9	0.6	2.9	3.8	0.4	1.6	-0.7(-0.5)	-0.1( 1.9)
	건설업	-0.7	5.0	15.4	8.7	10.7	13.2	15.8	14.5	17.7	17.9	12.9	16.2	8.7(-0.4)	14.1( 3.6)
	서비스업	2.3	2.9	3.0	2.9	3.3	2.8	3.5	3.6	2.1	2.6	2.3	3.2	2.1( 0.6)	2.2( 0.6)
소비	소비재 판매	2.0	4.1	4.3	3.6	6.3	5.0	5.9	3.5	2.5	1.9	1.7	4.2	1.1( 1.2)	3.5( 0.2)
투자	설비투자	5.2	6.9	-1.3	10.8	2.0	-7.6	0.6	-4.7	5.9	18.1	17.7	-12.6	18.5( 4.8)	25.0(-5.1)
물가		1.3	0.7	1.0	0.6	0.9	0.9	0.8	0.7	1.5	2.1	1.9	0.5	2.2( 0.2)	2.6( 0.6)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가스업(D)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 3) 전산업의 2016년 및 분기지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은 2016년 8월, 2017년 7월과 8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 )안은 전월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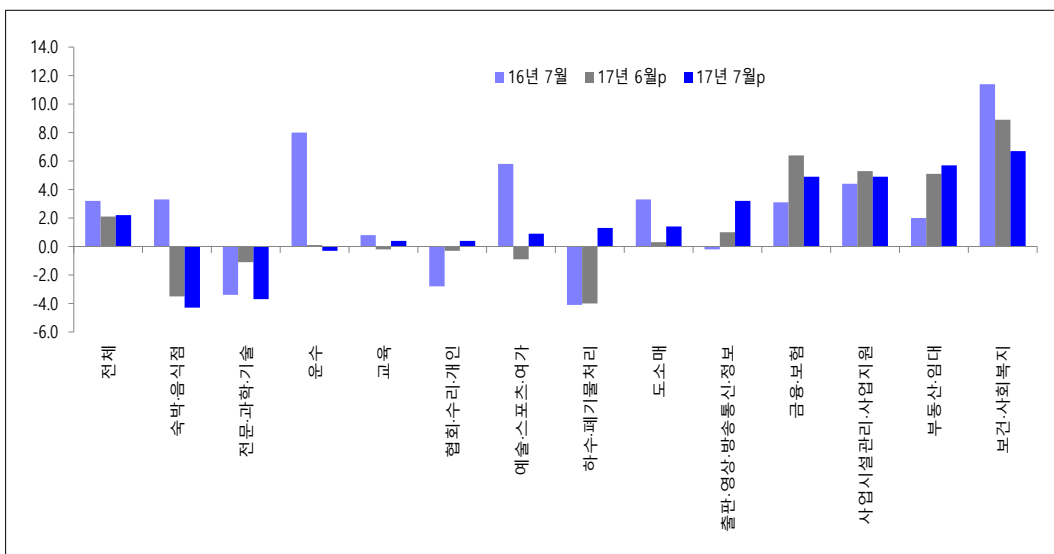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2017년 6월, 7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7. 9), 『2017년 7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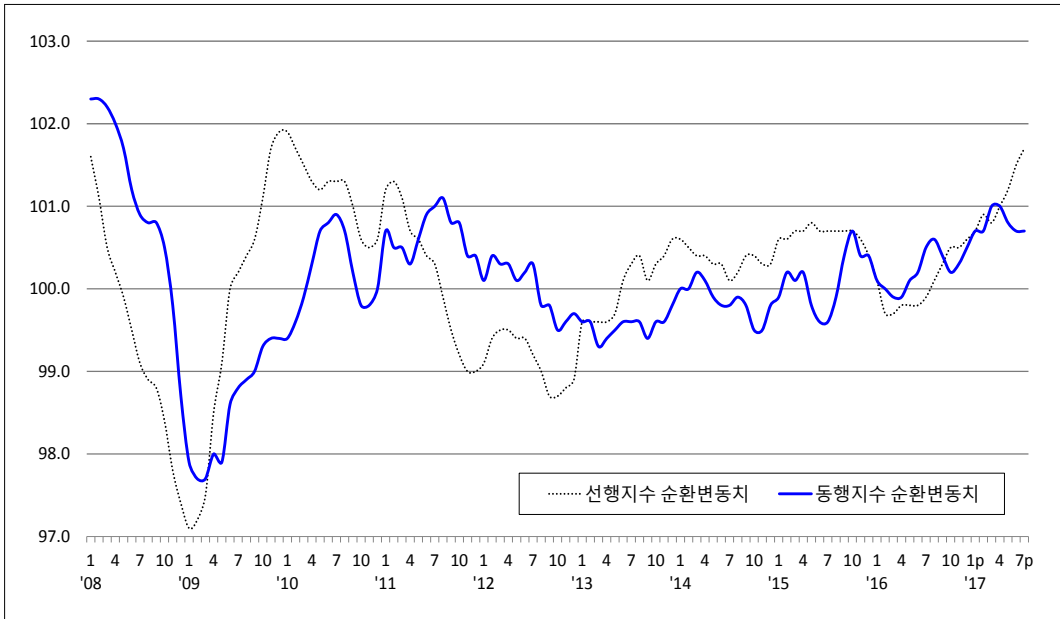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성미,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 고용 동향

### ◆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증가폭 둔화

- 2017년 8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7,74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6천 명(0.8%) 증가함.
  -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하여 취업자는 26,740천 명으로 212천 명 증가에 그쳤고, 성별로 보면 여성(174천 명)에 비해 남성(38천 명) 증가폭이 크게 둔화됨.
  - 실업자는 5천 명 증가한 1,001천 명으로 실업률은 3.6%(전년동월대비 보합), 남성 실업자(609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3천 명 증가하여 실업률은 3.8%(전년동월대비 보합) 기록했고, 여성 실업자(392천 명)는 1천 명 증가하여 3.3%(전년동월대비 보합) 기록했음.
- 2017년 8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성별로 보면 남성(74.1%)은 0.4%p 감소하였고, 여성(53.0%)은 0.4%p 상승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8월 중 고용률은 61.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여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를 보였는데 여성 고용률은 0.5%p 증가한 51.3%를 기록했고, 남성 고용률은 0.4%p 감소한 71.2%를 기록했음.
  -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66.7%를 기록하여 15세 이상 고용률에 비해 5.6%p 높게 나타남(그림 1 오른쪽 참조).
  - 15~64세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과 보합인 76.8%를 기록했고, 여성은 0.6%p 상승한 57.1%를 기록했음.
- 2017년 8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05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1천 명(0.7%) 증가함.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연로’는 10만 명 내외에서 증가가 지속중인 가운데 ‘쉬었음’이 2011년 2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하여 2017년 8월 전년동월대비 217천 명 증가(그림 2 오른쪽)한 것이 주된 요인임.
  - 최근 3개월째 10만 명 내외의 증가를 기록했던 ‘취업준비’ 사유는 2017년 8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60천 명 증가함.

〈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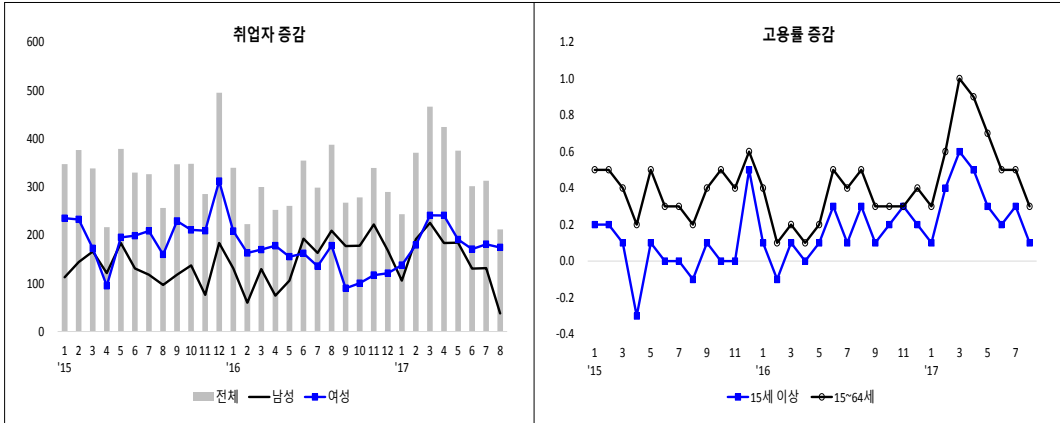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8월	8월	6월	7월	8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2,513	43,017	43,416	43,086	43,465	43,764	43,776	43,792
	(증가율)	(1.0)	(1.2)	(0.9)	(1.2)	(0.9)	(0.8)	(0.8)	(0.8)
	경제활동인구	26,536	26,913	27,247	27,064	27,524	27,929	27,879	27,740
	(증가율)	(2.6)	(1.4)	(1.2)	(1.1)	(1.7)	(1.3)	(1.1)	(0.8)
	취업자	25,599	25,936	26,235	26,141	26,528	26,860	26,916	26,740
	(증가율)	(2.1)	(1.3)	(1.2)	(1.0)	(1.5)	(1.1)	(1.2)	(0.8)
	증가수	533	337	299	256	387	301	313	212
	남성	(266)	(132)	(151)	(97)	(209)	(130)	(131)	(38)
	여성	(267)	(205)	(148)	(160)	(178)	(171)	(181)	(174)
	참가율	62.4	62.6	62.8	62.8	63.3	63.8	63.7	63.3
	남성	(74.0)	(73.8)	(73.9)	(74.0)	(74.5)	(74.6)	(74.6)	(74.1)
	여성	(51.3)	(51.8)	(52.1)	(52.1)	(52.6)	(53.4)	(53.2)	(53.0)
	고용률	60.2	60.3	60.4	60.7	61.0	61.4	61.5	61.1
	남성	(71.4)	(71.1)	(71.1)	(71.4)	(71.6)	(71.7)	(71.9)	(71.2)
	여성	(49.5)	(49.9)	(50.2)	(50.4)	(50.8)	(51.5)	(51.5)	(51.3)
실업자	937	976	1,012	923	996	1,069	963	1,001	
실업률	3.5	3.6	3.7	3.4	3.6	3.8	3.5	3.6	
남성	(3.6)	(3.7)	(3.8)	(3.5)	(3.8)	(4.0)	(3.6)	(3.8)	
여성	(3.5)	(3.6)	(3.6)	(3.2)	(3.3)	(3.7)	(3.3)	(3.3)	
비경제활동인구	15,977	16,105	16,169	16,022	15,941	15,834	15,897	16,052	
(증가율)	(-1.5)	(0.8)	(0.4)	(1.4)	(-0.5)	(-0.2)	(0.2)	(0.7)	
15~64세	참가율	67.8	68.3	68.7	68.3	69.0	69.8	69.7	69.4
	남성	(78.6)	(78.6)	(78.9)	(78.7)	(79.3)	(79.8)	(79.8)	(79.3)
	여성	(57.0)	(57.9)	(58.4)	(57.9)	(58.6)	(59.6)	(59.4)	(59.2)
	고용률	65.3	65.7	66.1	65.9	66.4	67.0	67.2	66.7
	남성	(75.7)	(75.7)	(75.8)	(75.7)	(76.2)	(76.6)	(76.8)	(76.2)
여성	(54.9)	(55.7)	(56.2)	(55.9)	(56.5)	(57.3)	(57.4)	(57.1)	

주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7. 9), 『2017년 8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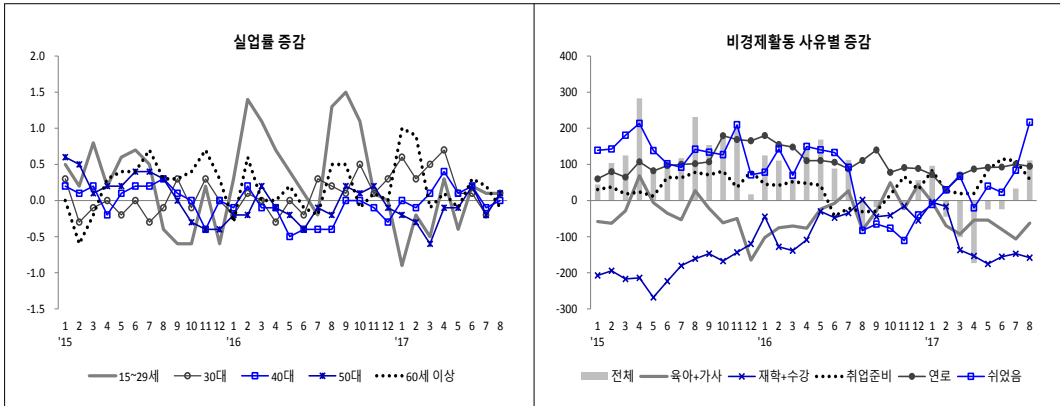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시학원,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 ◆ 5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증가폭 둔화

○ 2017년 8월 중 연령별 취업자는 20대(2천 명, 포함)와 30대(14천 명, 0.2%), 40대(69천 명, 1.0%)에서 감소가 지속중인 가운데 60세 이상(208천 명, 5.1%), 50~59세(108천 명, 1.8%)에서 증가폭 둔화

－ 2016년 이후 50·60대에서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2017년 8월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그림 3 참조).

- 20대 후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0천 명 증가했으나 20대 초반에서 취업자가 32천 명 감소하여 20대 취업자는 감소함.
- 30대 초반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지속중이며 2017년 8월 전년동월대비 100천 명 감소했고 남성은 77천 명, 여성은 23천 명 감소함.
- 반면 30대 후반은 취업자 증가(87천 명)가 지속중이며 2017년 8월 전년동월대비 남성은 45천 명, 여성은 42천 명 증가했고, 특히 30대 후반 여성 미혼자에서 46천 명 증가함(그림 4 참조).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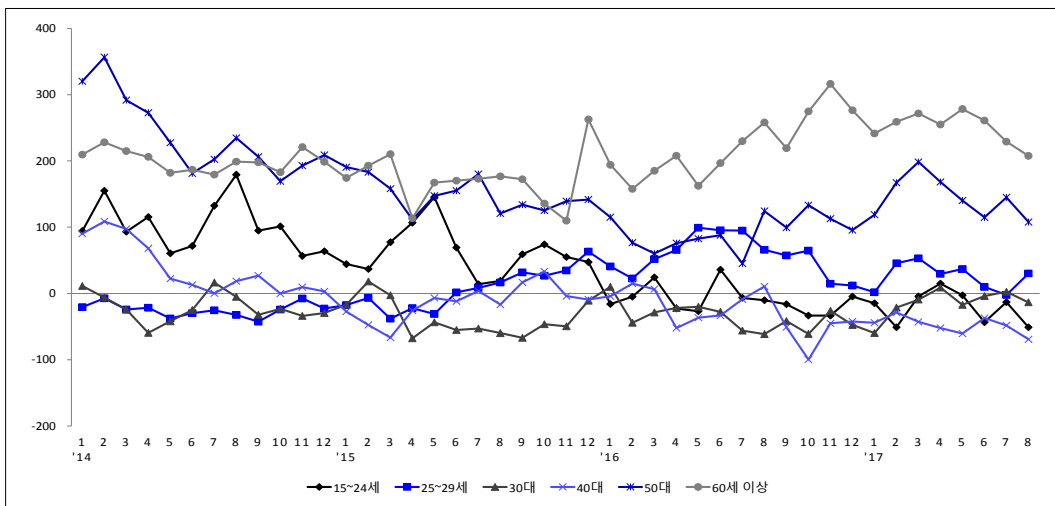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8월	8월	6월	7월	8월
전 체	25,599 ( 2.1)	25,936 ( 1.3)	26,235 ( 1.2)	26,141 ( 1.0)	26,528 ( 1.5)	26,860 ( 1.1)	26,916 ( 1.2)	26,740 ( 0.8)
15~19세	244 ( 9.1)	245 ( 0.1)	240 (-2.0)	271 (-1.4)	273 ( 0.7)	256 (10.1)	280 ( 0.9)	254 (-7.0)
20~29세	3,625 ( 1.6)	3,693 ( 1.9)	3,746 ( 1.4)	3,719 ( 1.1)	3,773 ( 1.4)	3,776 (-1.5)	3,818 (-0.5)	3,771 (-0.0)
20~24세	1,359 ( 6.4)	1,422 ( 4.6)	1,417 (-0.3)	1,450 ( 1.6)	1,438 (-0.8)	1,397 (-4.6)	1,442 (-1.1)	1,406 (-2.2)
25~29세	2,266 (-1.1)	2,272 ( 0.2)	2,329 ( 2.5)	2,270 ( 0.7)	2,335 ( 2.9)	2,379 ( 0.4)	2,377 (-0.1)	2,365 ( 1.3)
30~39세	5,714 (-0.4)	5,676 (-0.7)	5,640 (-0.6)	5,674 (-1.0)	5,612 (-1.1)	5,649 (-0.1)	5,646 ( 0.0)	5,599 (-0.2)
30~34세	2,908 ( 0.4)	2,863 (-1.5)	2,726 (-4.8)	2,872 (-1.9)	2,696 (-6.1)	2,626 (-3.8)	2,621 (-3.8)	2,596 (-3.7)
35~39세	2,806 (-1.2)	2,813 ( 0.2)	2,914 ( 3.6)	2,802 (-0.1)	2,917 ( 4.1)	3,023 ( 3.4)	3,025 ( 3.6)	3,003 ( 3.0)
40~49세	6,682 ( 0.6)	6,668 (-0.2)	6,640 (-0.4)	6,651 (-0.3)	6,661 ( 0.2)	6,627 (-0.6)	6,622 (-0.7)	6,592 (-1.0)
50~59세	5,845 ( 4.3)	5,994 ( 2.5)	6,086 ( 1.5)	6,001 ( 2.1)	6,125 ( 2.1)	6,240 ( 1.9)	6,249 ( 2.4)	6,233 ( 1.8)
60세 이상	3,489 ( 6.1)	3,661 ( 4.9)	3,884 ( 6.1)	3,826 ( 4.8)	4,084 ( 6.7)	4,312 ( 6.4)	4,301 ( 5.6)	4,291 ( 5.1)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7. 9), 『2017년 8월 고용동향』.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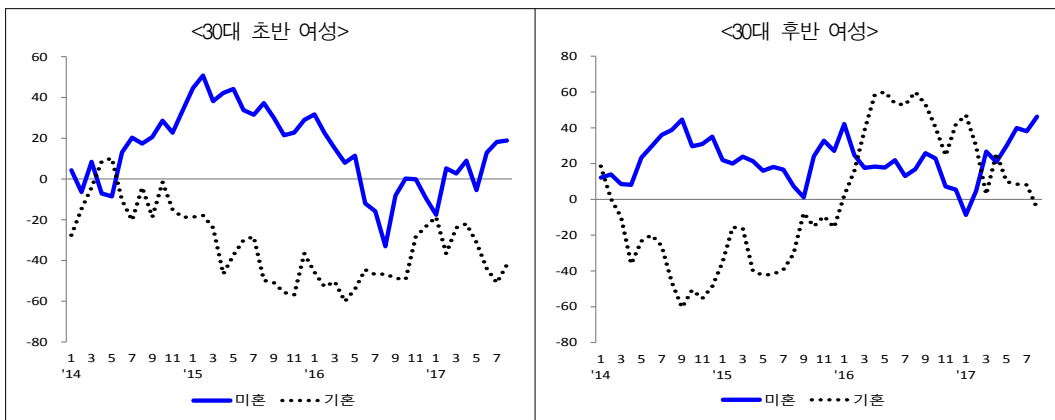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30대 여성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직 고용증가폭 확대 및 비임금근로자 감소 전환

- 2017년 8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9,88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6천 명(1.3%)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는 6,85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천 명(0.6%) 감소로 전환
  - 2017년 8월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167천 명 감소하여 10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증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상용근로자

는 460천 명 증가해 임금근로자 지지중임(그림 5 왼쪽).

- 한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6년 8월 대비 32천 명 증가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각각 35천 명 41천 명 감소하여 비임금근로자는 감소로 전환(그림 5 오른쪽)

〈표 3〉 증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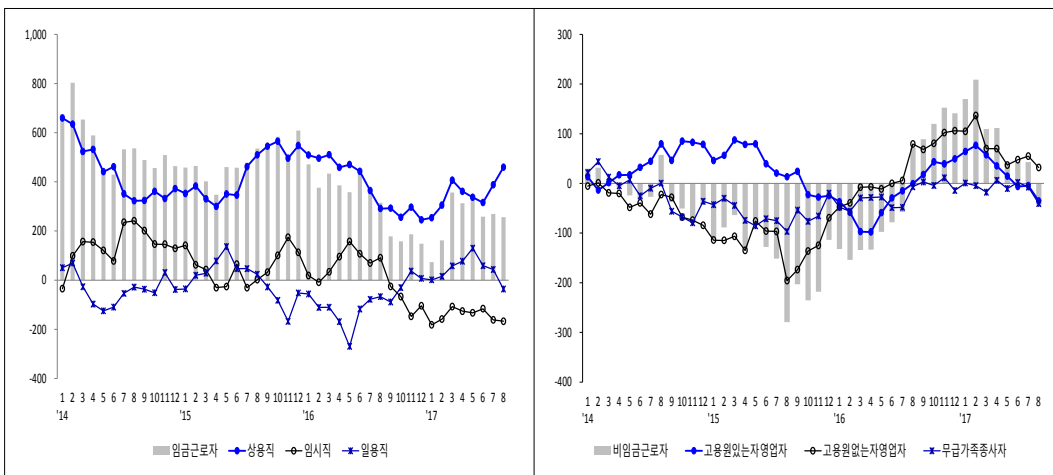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8월	8월	6월	7월	8월
전 체	25,599 ( 2.1)	25,936 ( 1.3)	26,235 ( 1.2)	26,141 ( 1.0)	26,528 ( 1.5)	26,860 ( 1.1)	26,916 ( 1.2)	26,740 ( 0.8)
비임금근로자	6,857 (-0.2)	6,706 (-2.2)	6,689 (-0.3)	6,829 (-3.9)	6,901 ( 1.1)	6,854 ( 0.6)	6,867 ( 0.6)	6,857 (-0.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50 ( 2.7)	1,581 ( 2.0)	1,561 (-1.3)	1,595 ( 0.8)	1,595 (-0.0)	1,567 (-0.4)	1,566 (-0.3)	1,559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02 (-0.9)	3,982 (-2.9)	4,009 ( 0.7)	4,026 (-4.6)	4,105 ( 2.0)	4,114 ( 1.2)	4,131 ( 1.3)	4,137 ( 0.8)
무급가족종사자	1,205 (-1.3)	1,144 (-5.1)	1,119 (-2.2)	1,208 (-7.4)	1,201 (-0.5)	1,173 ( 0.2)	1,170 (-0.6)	1,160 (-3.4)
임금근로자	18,743 ( 3.0)	19,230 ( 2.6)	19,546 ( 1.6)	19,312 ( 2.9)	19,627 ( 1.6)	20,007 ( 1.3)	20,049 ( 1.4)	19,883 ( 1.3)
상용근로자	12,156 ( 3.8)	12,588 ( 3.6)	12,974 ( 3.1)	12,675 ( 4.2)	12,966 ( 2.3)	13,316 ( 2.4)	13,379 ( 3.0)	13,426 ( 3.5)
임시근로자	5,032 ( 2.9)	5,086 ( 1.1)	5,104 ( 0.4)	5,106 ( 0.0)	5,196 ( 1.8)	5,114 (-2.2)	5,096 (-3.1)	5,029 (-3.2)
일용근로자	1,555 (-2.2)	1,556 ( 0.1)	1,469 (-5.6)	1,531 ( 1.6)	1,464 (-4.4)	1,577 ( 3.9)	1,574 ( 2.8)	1,428 (-2.5)
1~17시간	1,177 ( 0.5)	1,222 ( 3.9)	1,273 ( 4.1)	1,358 ( 3.6)	1,520 (11.9)	1,262 ( 0.7)	1,333 ( 4.0)	1,575 ( 3.6)
18~35시간	2,792 (-21.2)	2,776 (-0.6)	3,206 (15.5)	5,770 (-20.6)	6,960 (20.6)	2,668 ( 6.3)	2,816 ( 7.3)	6,799 (-2.3)
36시간 이상	21,220 ( 6.4)	21,535 ( 1.5)	21,346 (-0.9)	18,205 (10.8)	17,372 (-4.6)	22,618 ( 0.8)	22,413 ( 0.6)	17,751 ( 2.2)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8	43.6	43.0	40.7	39.8	43.5	43.2	39.7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7. 9), 『2017년 8월 고용동향』.

[그림 5]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 둔화

○ 2017년 7월 50천 명 증가를 기록했던 제조업 취업자가 8월 25천 명 증가로 증가폭이 소폭 축소된 가운데, 건설업에서는 취업자 증가가 큰 폭으로 둔화됨.

- 2017년 8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건설업 취업자 증가가 크게 둔화되어 34천 명 증가(7월 101천 명)를 기록하였고 건설업과 연관된 부동산 및 임대업 취업자 또한 8월 39천 명 증가로 증가폭이 축소됨.
-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건조한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7년 8월 48천 명 증가하였고, 공공행정 부문 취업자가 8월 75천 명 증가를 기록함.
- 반면 2017년 6월 감소로 전환한 숙박 및 음식점업은 8월 40천 명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달 감소로 전환했던 도소매업은 28천 명 증가로 전환(그림 5 참조).
- 상용직 감소(-40천 명)를 동반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가 4달째 이어지고 있으며 8월 전년동월대비 34천 명 감소함.

〈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8월	8월	6월	7월	8월
전 산업	25,599 (2.1)	25,936 (1.3)	26,235 (1.2)	26,141 (1.0)	26,528 (1.5)	26,860 (1.1)	26,916 (1.2)	26,740 (0.8)
농림어업	1,452 (-4.5)	1,345 (-7.4)	1,286 (-4.4)	1,482 (-7.2)	1,415 (-4.5)	1,475 (1.5)	1,426 (1.7)	1,434 (1.3)
광업	13 (-15.8)	14 (2.0)	19 (38.6)	15 (11.1)	18 (23.0)	23 (23.0)	24 (23.1)	24 (28.4)
제조업	4,330 (3.5)	4,486 (3.6)	4,481 (-0.1)	4,491 (3.6)	4,418 (-1.6)	4,509 (0.4)	4,513 (1.1)	4,442 (0.6)
전기·가스·증기·수도	83 (-8.3)	93 (12.1)	89 (-3.8)	93 (10.6)	88 (-4.5)	87 (-4.9)	85 (-8.0)	84 (-5.5)
하수, 원료재생·복원	87 (20.1)	88 (1.0)	96 (9.0)	90 (-2.5)	98 (9.1)	103 (7.5)	102 (5.3)	93 (-4.5)
건설업	1,796 (2.4)	1,823 (1.5)	1,845 (1.2)	1,820 (0.5)	1,891 (3.9)	1,996 (8.1)	1,976 (5.4)	1,925 (1.8)
도매 및 소매업	3,792 (3.6)	3,783 (-0.2)	3,729 (-1.4)	3,721 (-1.9)	3,759 (1.0)	3,730 (0.2)	3,759 (-0.3)	3,787 (0.7)
운수업	1,407 (-0.5)	1,409 (0.2)	1,412 (0.2)	1,422 (1.6)	1,396 (-1.9)	1,377 (-2.0)	1,385 (-0.9)	1,382 (-1.0)
숙박 및 음식점업	2,098 (6.4)	2,179 (3.9)	2,277 (4.5)	2,238 (4.8)	2,341 (4.6)	2,263 (-1.7)	2,312 (-0.8)	2,301 (-1.7)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714 (3.1)	772 (8.1)	786 (1.8)	781 (11.5)	803 (2.9)	787 (-0.4)	768 (-5.3)	792 (-1.4)
금융 및 보험업	837 (-3.0)	789 (-5.8)	797 (0.9)	786 (-5.7)	803 (2.1)	771 (-3.1)	771 (-4.7)	784 (-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8 (4.6)	535 (5.3)	570 (6.7)	530 (3.0)	582 (9.8)	638 (10.6)	653 (12.5)	621 (6.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025 (0.3)	1,048 (2.3)	1,102 (5.2)	1,065 (3.1)	1,101 (3.4)	1,094 (-2.8)	1,094 (-2.6)	1,067 (-3.1)
사업서비스	1,180 (0.6)	1,249 (5.8)	1,293 (3.5)	1,236 (5.4)	1,295 (4.8)	1,303 (0.9)	1,309 (1.2)	1,315 (1.6)
공공행정 등	957 (-0.8)	936 (-2.2)	993 (6.1)	950 (-2.4)	1,014 (6.7)	1,060 (2.4)	1,066 (2.4)	1,090 (7.4)
교육서비스업	1,807 (3.4)	1,818 (0.6)	1,846 (1.5)	1,815 (-0.7)	1,846 (1.7)	1,938 (4.6)	1,922 (4.8)	1,883 (2.0)
보건업 및 사회복지	1,693 (8.9)	1,770 (4.5)	1,851 (4.6)	1,789 (2.8)	1,887 (5.5)	1,929 (2.8)	1,937 (3.0)	1,935 (2.5)
예술·스포츠·여가	394 (0.3)	424 (7.9)	406 (-4.3)	439 (7.8)	402 (-8.5)	430 (2.9)	445 (7.3)	426 (5.9)
협회·단체·수리·기타	1,299 (-1.0)	1,277 (-1.7)	1,272 (-0.4)	1,284 (-0.9)	1,292 (0.7)	1,280 (0.2)	1,297 (1.4)	1,284 (-0.7)
가구내 및 자가	116 (-32.5)	82 (-29.0)	69 (-15.5)	77 (-31.1)	63 (-17.7)	57 (-26.3)	61 (-17.4)	60 (-4.9)
국제 및 외국기관	14 (91.9)	18 (29.4)	16 (-11.5)	19 (20.9)	17 (-11.7)	12 (-30.1)	12 (-30.3)	14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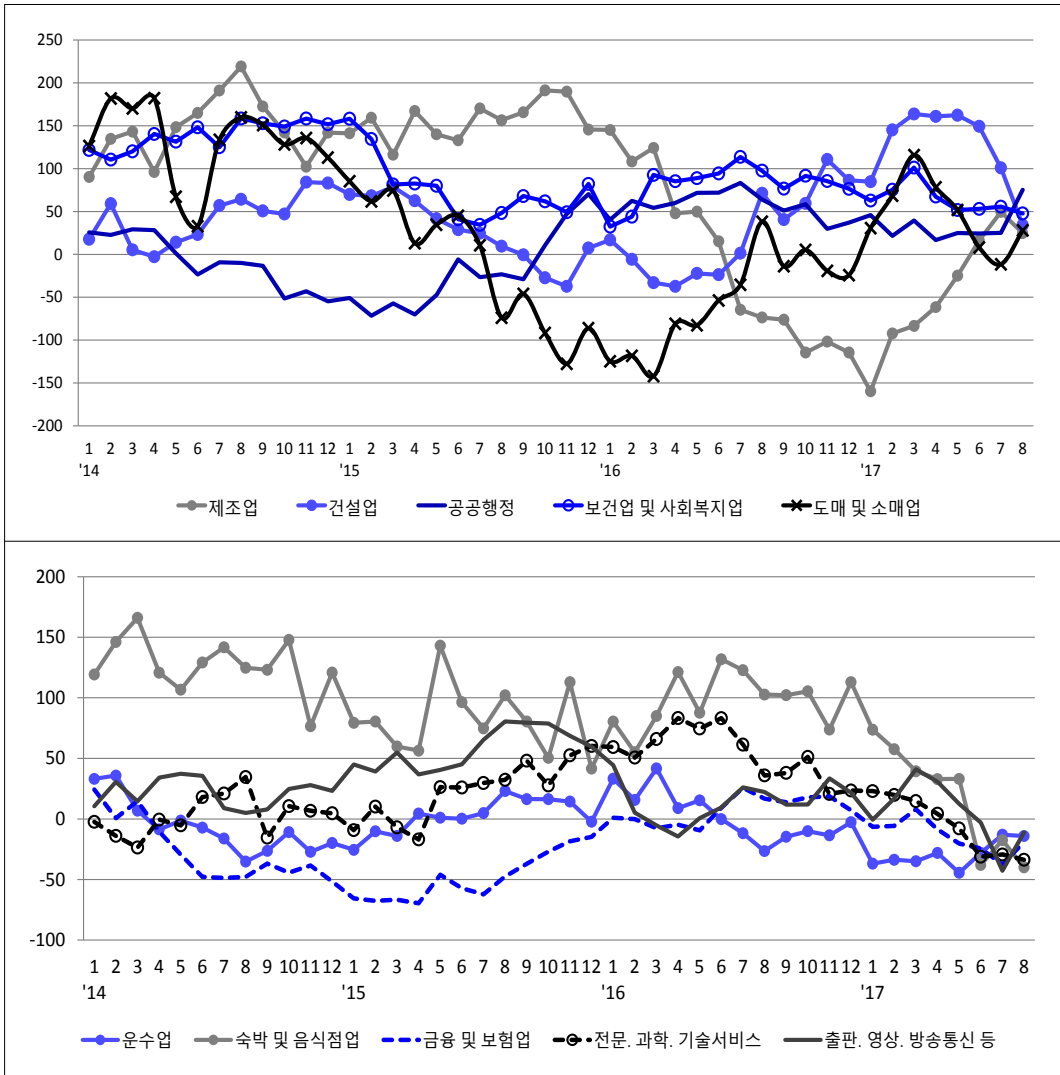
주 : 1)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 통계청(2017. 9), 『2017년 8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김종욱, 동향분석실 연구원)

##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7년 6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4% 증가

- 2017년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07천 원(3.4% ↑)임.
  - 2017년 6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한 3,591천 원이었으며,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한 1,530천 원임.
  - 상용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은 정액급여 증가폭 확대에 기인함(2.5% → 2.9%).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7년 6월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함.
  - 2017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은 명목임금상승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 전년동월대비 1.5% 상승에 그침.
  - 2016년 6월 0.7%이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7년 6월 1.9%로 상승하면서 실질임금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 2017년 1~6월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3.0%, 1.0% 상승에 그쳐 상승폭 둔화

- 특히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4.1% → 2.6%)이 크게 둔화함.
  - 이는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증가를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에 기인함.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5.1%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됨.

〈표 1〉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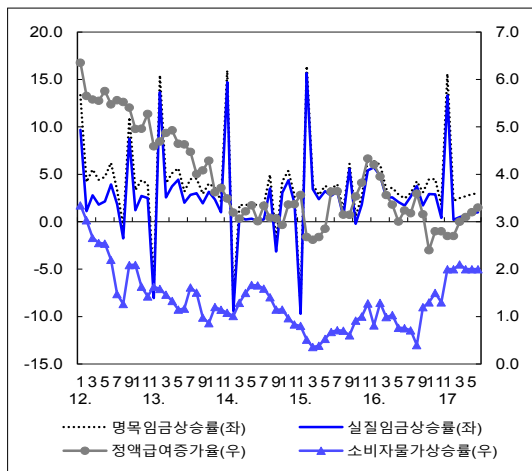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1~6월 평균	6월	1~6월 평균	6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111 (3.9)	3,190 ( 2.5)	3,300 (3.5)	3,425 (3.8)	3,375 (4.1)	3,296 ( 2.5)	3,477 ( 3.0)	3,407 (3.4)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299 (3.8)	3,378 ( 2.4)	3,490 (3.3)	3,623 (3.8)	3,566 (4.1)	3,659 ( 2.6)	3,591 (2.9)	
	정액급여	2,578 (4.4)	2,660 ( 3.2)	2,749 (3.3)	2,838 (3.3)	2,819 (3.6)	2,829 ( 3.2)	2,910 ( 3.3)	2,927 (3.5)
	초과급여	184 (1.7)	201 ( 9.3)	216 (7.4)	225 (3.8)	224 (3.8)	229 ( 2.5)	227 ( 1.2)	233 (1.6)
	특별급여	537 (1.8)	516 (-3.7)	525 (1.6)	560 (6.7)	523 (7.4)	431 (-2.3)	522 (-0.2)	432 (0.2)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77 (6.5)	1,387 ( 0.7)	1,424 (2.7)	1,469 (3.1)	1,445 (2.6)	1,475 ( 5.3)	1,518 ( 5.1)	1,530 (3.7)	
소비자물가지수	107.8 (1.2)	109 ( 1.3)	109.8 (0.7)	101.6 (1.0)	100.7 (0.8)	100.8 ( 0.7)	102.7 ( 2.0)	102.7 (1.9)	
실질임금증가율	2.5	1.2	2.7	2.8	3.2	1.7	1.0	1.5	

-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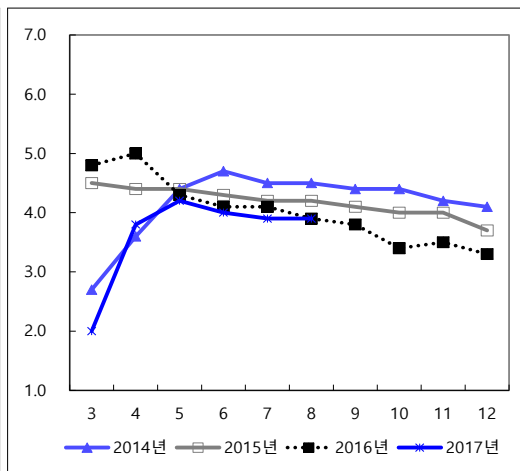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5=100.0)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월)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2017년 8월 협약임금 인상률 3.9%

- 2017년 8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3.9%로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임.
- 2017년 8월 현재 임금결정 진도율은 36.3%로 전년동월대비 부진함.

◆ 2017년 6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 확대

- 2017년 6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0%, 3.4% 상승함.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총액은 3,090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됨. 이는 정액급여증가율의 확대(0.9%p ↑)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4,78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폭 확대됨. 특히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상승은 특별급여가 증가 영향이 컸음(-7.1% → 7.9%)

◆ 2017년 1~6월 평균 중소기업의 임금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한편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둔화

- 2017년 1~6월 평균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4,962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8% 상승에 그친 가운데 중소기업의 임금은 3,128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4.5% 상승함.

〈표 2〉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	2016	2017			
				1~6월 평균	6월	1~6월 평균	6월
중소 규모	소 계	2,938 ( 3.6)	3,048 ( 3.7)	2,994 ( 3.6)	2,972 ( 3.2)	3,128 ( 4.5)	3,090 ( 4.0)
	상용임금총액	3,110 ( 3.4)	3,228 ( 3.8)	3,166 ( 3.6)	3,146 ( 3.2)	3,295 ( 4.1)	3,258 ( 3.5)
	정액급여	2,577 ( 2.9)	2,660 ( 3.2)	2,643 ( 3.2)	2,653 ( 3.4)	2,750 ( 4.1)	2,768 ( 4.3)
	초과급여	184 ( 6.6)	197 ( 7.3)	195 ( 7.1)	201 ( 6.1)	202 ( 4.0)	206 ( 2.4)
	특별급여	349 ( 5.3)	371 ( 6.1)	329 ( 5.2)	293 (-0.1)	342 ( 4.1)	284 (-3.0)
	비상용임금총액	1,434 ( 3.2)	1,486 ( 3.6)	1,461 ( 3.3)	1,506 ( 6.2)	1,534 ( 5.0)	1,555 ( 3.2)
대규모	소 계	4,849 ( 3.7)	4,959 ( 2.3)	4,920 ( 2.8)	4,626 (-0.7)	4,962 ( 0.8)	4,784 ( 3.4)
	상용임금총액	5,017 ( 3.9)	5,131 ( 2.3)	5,089 ( 2.9)	4,813 (-0.7)	5,124 ( 0.7)	4,966 ( 3.2)
	정액급여	3,438 ( 5.1)	3,519 ( 2.3)	3,490 ( 3.1)	3,508 ( 1.9)	3,555 ( 1.9)	3,579 ( 2.0)
	초과급여	349 (10.4)	331 (-5.2)	337 (-5.7)	340 (-6.4)	326 (-3.4)	346 ( 1.9)
	특별급여	1,230 (-0.7)	1,281 ( 4.2)	1,262 ( 4.6)	965 (-7.1)	1,243 (-1.5)	1,041 ( 7.9)
	비상용임금총액	1,329 (-1.8)	1,311 (-1.4)	1,291 (-3.6)	1,217 (-3.0)	1,370 ( 6.1)	1,319 ( 8.4)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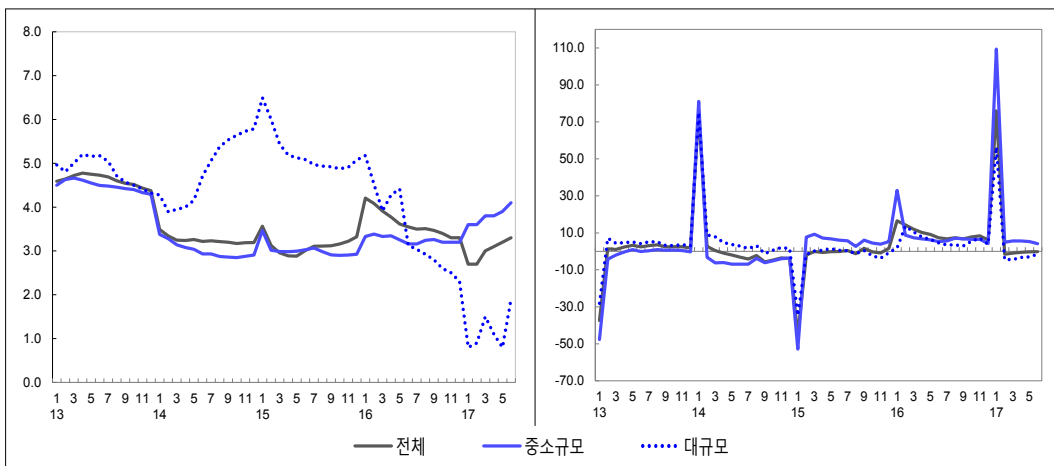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둔화는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율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에서 비롯됨.

[그림 3] 1~6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급여증가율과 특별급여증가율 추이 (단위 : %)



주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6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

- 2017년 6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7.5%)이었으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6.2%), 제조업(6.1%)이었으며 전산업 평균임금상승률을 크게 상회한 수준임.
  -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6.1% 하락해 가장 높은 임금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동산 및 임대업(-3.4%), 금융 및 보험업(-1.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0.3%) 부문에서 임금이 감소함.
  - 6월 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7,991천 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96천 원)이었음.

◆ 2017년 1~6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2%)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7년 1~6월 평균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6.7% ↑)이었으며, 도매 및 소매업(5.3%), 여가관련 서비스업(4.9%) 등 주요 내수산업으로 나타남.

-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2%)만이 전년동평균대비 임금이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 및 임대업(1.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도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제조업(3.0%)도 전산업 평균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	2016	2017			
			1~6 평균	6월	1~6월 평균	6월
전 산업	3,300 (3.5)	3,425 (3.8)	3,375 (4.1)	3,296 ( 2.5)	3,477 ( 3.0)	3,407 ( 3.4)
광업	3,676 (5.6)	3,796 (3.3)	3,722 (2.8)	3,990 (-3.2)	3,803 ( 2.2)	4,120 ( 3.2)
제조업	3,617 (3.2)	3,755 (3.8)	3,710 (4.5)	3,511 ( 1.5)	3,821 ( 3.0)	3,724 ( 6.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856 (5.4)	6,330 (8.1)	6,139 (7.2)	8,507 (12.9)	6,066 (-1.2)	7,991 (-6.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945 (4.8)	3,118 (5.8)	3,009 (5.1)	3,003 ( 4.2)	3,125 ( 3.9)	3,112 ( 3.6)
건설업	2,591 (3.8)	2,673 (3.2)	2,676 (3.3)	2,627 ( 2.0)	2,767 ( 3.4)	2,734 ( 4.0)
도매 및 소매업	3,292 (2.7)	3,428 (4.1)	3,377 (5.0)	3,286 ( 4.2)	3,555 ( 5.3)	3,491 ( 6.2)
운수업	2,952 (5.3)	3,102 (5.1)	3,016 (6.1)	3,068 ( 5.9)	3,142 ( 4.2)	3,217 ( 4.8)
숙박 및 음식점업	1,824 (2.2)	1,881 (3.1)	1,862 (3.5)	1,856 ( 5.3)	1,987 ( 6.7)	1,996 ( 7.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4,012 (2.7)	4,146 (3.3)	4,134 (3.7)	4,008 ( 0.8)	4,259 ( 3.0)	4,105 ( 2.4)
금융 및 보험업	5,488 (4.9)	5,712 (4.1)	5,714 (3.9)	5,265 ( 1.9)	5,859 ( 2.5)	5,196 (-1.3)
부동산 및 임대업	2,478 (6.7)	2,617 (5.6)	2,570 (4.6)	2,630 ( 4.3)	2,602 ( 1.2)	2,542 (-3.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561 (3.2)	4,817 (5.6)	4,604 (6.0)	4,671 ( 1.9)	4,737 ( 2.9)	4,656 (-0.3)
사업서비스업	2,002 (4.1)	2,077 (3.7)	2,030 (2.7)	2,071 ( 4.1)	2,081 ( 2.5)	2,075 ( 0.2)
교육서비스업	3,483 (3.2)	3,556 (2.1)	3,515 (1.9)	3,331 ( 1.9)	3,650 ( 3.8)	3,428 (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72 (2.7)	2,860 (3.2)	2,819 (2.6)	2,834 ( 5.1)	2,880 ( 2.1)	2,851 ( 0.6)
여가관련 서비스업	2,512 (4.7)	2,618 (4.2)	2,570 (6.4)	2,579 ( 3.8)	2,696 ( 4.9)	2,635 ( 2.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326 (3.4)	2,477 (6.5)	2,400 (7.0)	2,421 ( 3.9)	2,511 ( 4.6)	2,541 ( 5.0)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8시간 (-4.0%) 감소한 172.5시간(월력상 근로일수 20.6일로 전년동월대비 0.1일 감소)

○ 2017년 6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8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8.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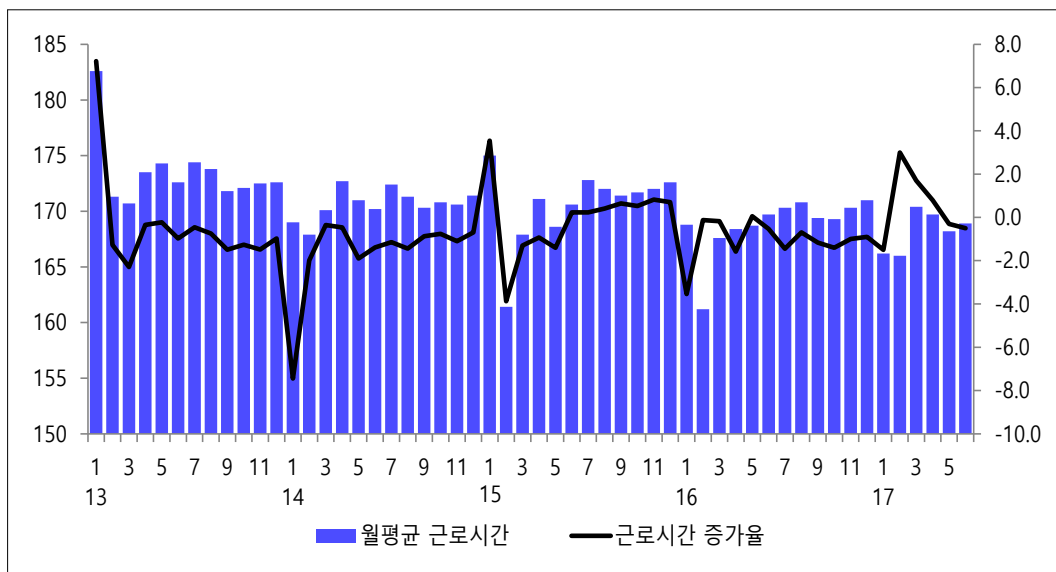
고,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은 110.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함.

◆ 2017년 1~6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8시간 감소한 168.9시간(월력상 근로일수 20.2일로 동일)

○ 2017년 1~5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3.5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4% 감소하였고, 비상용근로자는 110.3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6% 감소함.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1~6월 평균) 추이

(단위 : 시간, %)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6월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등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1.1%, 0.8% 감소(사업체규모별 1~6월 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평균대비 0.5% 감소)

○ 6월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73.3시간(-1.1%), 대규모 사업체는 168.9시간(-0.8%)으로 나타남.

〈표 4〉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5	2016	2017			
				1~6월 평균	6월	1~6월 평균	6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73.2( 0.7)	172.0( -0.7)	170.5( -0.3)	175.2( -3.2)	169.7( -0.5)	173.3(-1.1)
	상용 총근로시간	179.6( 0.7)	178.6( -0.6)	176.7( -0.4)	182.4( -3.2)	175.7( -0.6)	179.8(-1.4)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7.4( 0.8)	166.1( -0.8)	164.4( -0.4)	169.7( -3.6)	163.7( -0.4)	167.7(-1.2)
	상용 초과근로시간	12.2( 0.0)	12.4( 1.6)	12.3( 0.8)	12.7( 1.6)	12( -2.4)	12.1(-4.7)
	비상용근로시간	117.5(-1.5)	115.7( -1.5)	114.9( -0.1)	115.1( 0.7)	112.3( -2.3)	113.3(-1.6)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9.7( 0.5)	166.9( -1.6)	166.3( -1.3)	170.3( -4.4)	165.5( -0.5)	168.9(-0.8)
	상용 총근로시간	173.7( 0.9)	170.8( -1.7)	170.1( -1.3)	175.3( -4.6)	168.8( -0.8)	173.4(-1.1)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8.3( 1.1)	157.0( -0.8)	155.8( -0.2)	161.1( -3.9)	156.3( 0.3)	160.3(-0.5)
	상용 초과근로시간	15.4(-1.3)	13.7(-11.0)	14.3(-11.7)	14.2(-11.3)	12.5(-12.6)	13.1(-7.7)
	비상용근로시간	86.9(-7.4)	85.5( -1.6)	84.7( -2.6)	77.5( 0.0)	91( 7.4)	82.6( 6.6)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7년 6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

-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1.9%)이었음.
  - 이 외에도 교육서비스업(-1.7%), 도매 및 소매업(-1.6%) 등에서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으며,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에서는 근로시간이 증가함.
  - 6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189.6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8.8시간)으로 나타남.
- 1~6월 평균 근로시간은 산업별 차이를 보임. 부동산 및 임대업(-2.1%)이 가장 많이 감소한 가운데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2.2%)은 가장 많이 증가함.
  - 1-6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186.0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5.2시간)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5	2016	2017			
			1~6월 평균	6월	1~6월 평균	6월
전 산업	172.6 ( 0.7)	171.0 (-0.9)	169.7 (-0.5)	174.3 (-3.4)	168.9 (-0.5)	172.5 (-1.0)
광업	179.2 (-0.1)	179.0 (-0.1)	177.3 (-0.2)	185.2 (-1.4)	180.9 ( 2.0)	185 (-0.1)
제조업	186.3 ( 0.5)	184.5 (-1.0)	183.4 (-0.8)	189.7 (-3.3)	182.8 (-0.3)	187.5 (-1.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0.8 ( 0.2)	167.5 (-1.9)	165.7 (-2.4)	174 (-0.5)	166 ( 0.2)	174.2 ( 0.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8 ( 0.0)	177.1 (-0.4)	175.4 ( 0.2)	177.9 (-4.7)	179.2 ( 2.2)	184.9 ( 3.9)
건설업	147.4 (-0.7)	145.7 (-1.2)	145.5 ( 0.1)	147.8 (-2.0)	145.2 (-0.2)	148.8 ( 0.7)
도매 및 소매업	172.9 ( 0.3)	171.4 (-0.9)	169.6 (-1.0)	174.5 (-3.5)	169.1 (-0.3)	171.7 (-1.6)
운수업	173.9 ( 0.5)	172.3 (-0.9)	171.3 (-0.3)	175 (-2.2)	169.1 (-1.3)	171.8 (-1.8)
숙박 및 음식점업	175.3 ( 0.1)	172.3 (-1.7)	170.7 (-1.8)	173.8 (-1.2)	170.9 ( 0.1)	173.2 (-0.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4.3 ( 1.5)	163.3 (-0.6)	161.2 (-0.4)	166.8 (-3.8)	162.3 ( 0.7)	166.4 (-0.2)
금융 및 보험업	164.3 ( 0.6)	162.8 (-0.9)	161.1 (-0.8)	166.5 (-4.7)	161.7 ( 0.4)	165.8 (-0.4)
부동산 및 임대업	192.8 ( 1.4)	191.2 (-0.8)	190 (-0.3)	193.3 (-3.0)	186 (-2.1)	189.6 (-1.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4.9 ( 1.0)	163.3 (-1.0)	161.8 (-0.5)	167.4 (-4.2)	161.5 (-0.2)	166.1 (-0.8)
사업서비스업	173.2 ( 0.8)	171.7 (-0.9)	169.1 (-0.7)	171.8 (-4.3)	167.3 (-1.1)	169.1 (-1.6)
교육서비스업	151.5 (-0.3)	148.5 (-2.0)	146.1 (-2.7)	149.9 (-5.1)	145.6 (-0.3)	147.3 (-1.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1.5 ( 1.1)	169.7 (-1.0)	168 (-0.7)	172.6 (-4.1)	166.2 (-1.1)	170 (-1.5)
여가관련 서비스업	160.6 ( 1.1)	159.7 (-0.6)	157.8 (-0.3)	163.7 (-1.9)	157.8 ( 0.0)	162 (-1.0)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3.7 ( 0.5)	163.6 (-0.1)	161.7 ( 0.5)	167.1 (-1.1)	162.4 ( 0.4)	165.7 (-0.8)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17년 8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533건
  - 2017년 8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524건)보다 9건 많은 수치임.
- 2017년 8월 조정성립률 56.2%
  - 2017년 8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7.7%에 비해 1.5% 낮아진 수치임.

〈표 1〉 2016년, 2017년 8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7. 8	533	482	246	108	138	192	23	169	7	37	51	56.2
2016. 8	524	475	240	97	143	176	15	161	12	47	49	57.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17년 8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9,056건
  - 2017년 8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9,555건)보다 499건 낮은 수치임.
  -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3.5%(992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6.5%(6,333건)를 차지함.

〈표 2〉 2016년, 2017년 8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7. 8	9,056	7,325	868	124	1,294	461	2,625	1,953	1,731
2016. 8	9,555	7,817	994	172	1,351	526	3,011	1,763	1,73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 설치·운영**

-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노동청”이 9.12부터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설치·운영
  - 현장노동청은 국민 제안 아이디어 및 진정·제보를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
  - 서울현장노동청(서울역 광장 소재) 개청식 직후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는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진정서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함.
  - 현장노동청은 2017. 9. 12(화)~9. 28(목)까지 고용노동부 6개청과 주요 3개지청(경기, 울산, 강원) 관할지역 내에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장 천막과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됨.
- 10번째 현장노동청,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설치
  -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이어 구로디지털단지역 문화광장에도 현장노동청이 설치·운영됨.
  - 구로현장노동청은 2017. 9. 18(월)~9. 28(목)까지 주말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됨.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노동청은 노동행정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 노동자,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그간 노동행정을 접하면서 생각했던 잘못된 관행, 제도상의 불편·애로사항을 제안, 진정, 제보 등 형식에 관계없이 현장노동청에 제출하면, 제출자의 신원을 보장하면서도 제안은 열린 마음으로 반영하고, 진정·제보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함.

◆ **학교비정규직 교섭 난항**

-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무산
  -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 유치원 강사 2개 직종만 전환 권고
  - 지난달부터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통기준을 논의중인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가 8개 검토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림.
  - 심의위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한 8개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에 대해 “학교회계직(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권고한다”는 방안을 채택함.
  - 반면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산학 겸임교사 △교과교실

제 강사와 관련해서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힘. 다문화 언어강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시·도교육청이 (7월에 발표한)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함.

- 심의위는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된 직종에 대해서는 급여·복지수준 개선, 계약연장시 평가절차 간소화, 계약기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함.
- 심의위의 결정은 기존 교사나 교대생·청년구직자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상시업무는 정규직화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가 사라졌다”며 “심의위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함.

○ 교육당국과 집단교섭중인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이 한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근속수당 5만 원 지급”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힘.
-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됨. 3개 노조에 속한 비정규노동자는 9만여 명 규모임.
- 연대회의에 따르면, 조리사와 영양사 등 학교비정규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5~70% 수준임. 정규직이 1년 근속할 때마다 월급이 10만 원가량 인상되는 반면 비정규노동자는 3년 이상 일해야 1년에 2만 원(35만 원 상한)이 오름. 비정규노동자는 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 복지포인트 등도 정규직보다 적게 받음.
-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80%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당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만 반영하려고 궁리하고 있다”고 비판함.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대표로 나온 교섭위원들은 예산을 핑계로 집단교섭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추석 전에 신속하게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함.

#### ◆ 한국노총 중앙투쟁선봉대 출범

○ 산하조직 투쟁 연대·지원 강화

- 한국노총은 9월 11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선봉대원 16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 한국노총은 중앙투쟁선봉대를 통해 조직별로 투쟁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활동가를 양성해 산하조직 연대투쟁과 시민·사회·지역단체를 비롯한 외부단체 연대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절차 시작

- 9월 18일, 두 번째 직선제 위원장 선출 임원선거 절차 시작
  - 민주노총은 “18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하는 9기 임원선출 선거에 돌입한다”고 밝힘.
  - 이번 선거는 2014년 첫 조합원 직접선거 임원 선출에 이은 두 번째 직접선거로,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사무총장 등 총연맹 임원과 함께 산하 16개 지역본부 임원을 동시에 직선으로 선출하는 첫 동시선거로 진행됨.
  - 언론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직선 1기 집행부의 과제는 박근혜 노동개약에 맞서는 것이었다면, 2기 집행부의 임무는 여러 사회개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시기에 촛불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 보건의료노조 동향

- 비정규직 정규직화 · 인력확충 요구, 21일 파업 예고
  -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90.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함.
  - 9월 18일, 노조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2만6천973명 중 2만1천17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9천6명이 찬성함(투표율 77.9%).
  - 9월 5일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한 96개 사업장 중 5곳은 자율교섭으로 타결함. 나머지 15개 사업장은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함.
  - 노조는 7월 20일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한 뒤 의료기관 특성별 교섭과 병원별 현장교섭을 실시함.
  - 노조의 주요 요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인력확충임. 노동계는 공공병원 총정원제와 총인건비제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임.
  - 언론에 따르면, 노조관계자는 “중앙노동위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20일까지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교섭을 할 것”이라면서도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핵심 요구를 외면하고 불성실 교섭을 일삼거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사업장에서는 파업과 함께 노조 차원의 산별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 파업 예고 당일(21일), 62개 사업장 교섭 타결
  - 보건의료노조 62개 사업장이 파업 예고일인 21일 오전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함.
  - 이달 5일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한 사업장 96곳 중 34곳은 조정기간을 연장하고 다음주까지 집중교섭을 실시할 예정임.

- 교섭 타결 사업장 중 13곳은 1천300여 명 인력확충과 520여 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합의함.

### ◆ 서울지하철 9호선 첫 파업 예고

#### ○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5% 찬성

-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구간 직원들로 구성된 서울9호선운영노조(위원장 박기범)가 노동조건 개선과 시민안전 지키는 파업을 하겠다고 밝힘.
- 9월 17일, 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457명 가운데 402명이 투표에 참여해(투표율 88%) 85% 찬성률(390명)로 가결됨.
- 9호선 1단계 구간은 외국계 민간자본이 2009년 건설해 민간운영사에 위탁용역을 맡김. 자본금 8억 원을 출자한 1단계 운영사는 7년간 234억 원을 배당해 혈세 낭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배당금을 높이는 동안 소속된 직원들의 처우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짐.
- 노조 관계자는 “공공재를 민간에 맡긴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9호선을 다시 공공재로 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100일 동안 회사 입장변화나 개선안이 없으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언급함.

### ◆ 한국마사회(부산경남) 특별감독 결과 발표

#### ○ 노동관계 전반에서 취약점 드러냄.

- 고용노동부는 외부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감독반이 한국마사회(부산경남본부)에 대하여 13일간(8. 17~9. 2)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한 결과를 발표함.
- 말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어 감독한 결과, 노동관계 전반에서 많은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남.
- 세계 선진수준의 경마 실시국(2016년 매출액 7.7조 원)에 걸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은 낮은 수준으로, 특히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 노동관계 분야에서도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 소속 말관리사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 등이 적발됨.
-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10월 중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임. **KLI**

(송민수, 동향분석실 전문위원)